

# 강호동 “다양한 여행 했지만 ‘골라자봐’ 매력은 사람 냄새”

매회 만나는 사람, 들려주는 이야기 달라 힐링공간  
로맨스·먹방·리얼 야생 캠핑 등 콘셉트 다양  
이상민·조재윤·양세찬·홍현희도 “캠핑 매력 흠뻑”

KBS 2TV '1박2일' 시절부터 여행, 야생,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키워드를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MC 강호동(51)이 요새 캠핑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와 LG헬로비전에서 방송 중인 예능 '호동's 캠핑존-골라자봐'에서 그는 이상민이 이끄는 '먹존'과 양세찬·홍현희가 주도하는 '팅존', 조재윤이 활약 중인 '생존'을 총괄한다. 1박 2일 함께하는 비연예인 출연자들은 먹고, 사귀고, 생존 체험도 하지만 무엇보다 강호동이 이끄는 대화에 빠져 마음을 열고 한바탕 이야기를 쏟아내고 돌아간다.

최근 연휴뉴스와 서면으로 만난 강호동은 “‘골라자봐’는 촬영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든다. 매회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또 각 구역의 ‘존지기’들이 날로 업그레이드돼 우리 프로그램만의 다채로운 색깔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부터 각 구역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으니, 시청자들에게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멤버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설렘, 새로운 구성원들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 좋은 느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캠핑장은 매년 예약 마감일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강호동은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저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골라자봐’는

기본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박 2일 동안 같이 웃고 울면서 많은 분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결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프로그램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후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돼드린 것 같아 존중으로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느껴지죠.”

다양한 여행 예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그는 ‘골라자봐’만의 매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취향대로 ‘골라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캠핑장에서는 로맨스부터 군침 도는 먹방, 그리고 리얼 야생 캠핑이 주는 스틸까지 모두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여행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는 캠핑존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이잖아요. ‘사람 냄새’가 나는 휴머니즘 캠핑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최고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관리자 역할이 낯설기도 했는데 캠핑존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재밌어 부담을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가 시즌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이 여의치 않은데, 무더운 여름 시원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



‘호동’s 캠핑존-골라자봐’에 출연중인 강호동, 조재윤, 이상민, 홍현희, 양세찬. (왼쪽부터)

랑하는 이들과 ‘골라자봐’를 시청하신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무엇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웃었다.

강호동이 열심히 서포터 중인 ‘존지기’들도 캠핑 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먹존” 셰프로서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은 요리들을 선보이며 캠핑 요리는 단순하다는 선입견을 깬 이상민은 “맛도 중요하지만, 추억도 남아야 하기에 음식이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여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상민은 또 “캠핑에 대해 무지해서 처음에는 그 매력을 몰랐는데 점점 알아간다”고 말했다.

‘생존’의 수장 조재윤은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서 게스트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내리찍는 태양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풀을 뜯고 나무 톱질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믿고 따라와 준 게스트들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했다.

‘팅존’에서 활약 중인 양세찬은 “어색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는데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며 “캠핑을 하면서 소개팅을 하는 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직접 해보니 굉장한 매력 있다”고 말했다.

홍현희도 “캠핑도 즐거웠지만 젊은 남녀의 긴장감과 설렘 등 감정이 팽팽해 재밌었다. 매회 두 커플씩 성사돼 꽤 만족한다. 녹화가 아닌 쉬는 시간에도 남녀 손님들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도 언젠가 한 번쯤은 남편 제이슨과 극한 캠핑을 해보고 싶다”며 “결혼 후 첫 외박 촬영을 했는데, 남편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캠핑장으로 일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부럽다며 따라가면 안 되냐고 매번 그랬다”고 웃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방송. /연합뉴스

## BTS, 일본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6주째 1·2위

‘퍼미션 투 댄스’ ‘버터’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신곡 두 곡으로 일본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1·2위를 꾸준히 독식하고 있다. 18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23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지난 9~15일 약 971만회 재생돼 주간 스트리밍 랭킹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약 902만회 스트리밍된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곡 ‘버터’였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퍼미션 투 댄스’와 ‘버터’로 6주째 이 차트 1·2위를 지키게 됐다.

지난달 19일 자 차트에서는 ‘버터’가 1위를, ‘퍼미션 투 댄스’가 2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5주간은 ‘퍼미션 투 댄스’가 정상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는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지 라디오 방송 제이-웨이브(J-WAVE)의 ‘도쿄 핫 100’ 차트와 오사카 FM802 ‘오사카 HOT 100’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으며 훗카이도, 나고야에 거점을 둔 라디오 방송 차트에서도 각각 2주를 내리 1위에 올랐다.

유통사 유니버설뮤직 관계자는 “지난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적인 히트에 이어 4월 일본어 곡 ‘필름 아웃’, 5월 ‘버터’, 그리고 7월 ‘퍼미션 투 댄스’에 이르기까지 방탄소년단의 곡이 일본 전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곡 ‘퍼미션 투 댄스’는 소셜미디어에서 댄스 동영상의 확산이 이어져 ‘뮌’이 예상된 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발매된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영어 곡으로 “마음껏 춤추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곡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챌린지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KBS 드라마 스페셜, TV시네마·단막극으로 돌아온다

KBS 2TV는 10년간 지상파 단막극의 명맥을 이어온 ‘드라마 스페셜’을 TV시네마와 단막극으로 새롭게 구성해 선보인다고 18일 소개했다.

올해 ‘드라마 스페셜 2021’은 90분 분량의 ‘TV시네마’ 4편과 70분 편성의 단막극 6편, 총 10편을 선보인다.

특히 ‘TV시네마’는 올해 KBS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프로젝트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담은 신선한 소재와 SF(공상과학) 공포, 미스터리, 심리소릴라 등 장르를 실험적인 형식과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라인업에는 ‘희수’(연출 최상열·극본 염제이)를 시작으로, ‘F20’(연출 홍은미·극본 채우), ‘통증의 풍경’(연출 임세준·극본 권혁진, 송슬기), ‘사이렌’(연출 안준용·극본 고우진)까지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F20’은 안방극장에서 처음 선보이기 전, 극장에서 관객들과 먼저 만날 예정이다.

단막극으로는 2020 KBS 단막극 극본공모 우수



작인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연출 구성준·극본 김미경)을 포함해 ‘비트윈’(Be:twIn)(연출 최연수·극본 염제이), ‘그녀들’(연출 이용희·극본 강한), ‘셋’(연출 구성준·극본 이남희), ‘보통의 재화’(연출 최연수·극본 김성준)와 1편(미정)이 방송된다. /연합뉴스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